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主幹 宋赫
編輯部長 文孝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 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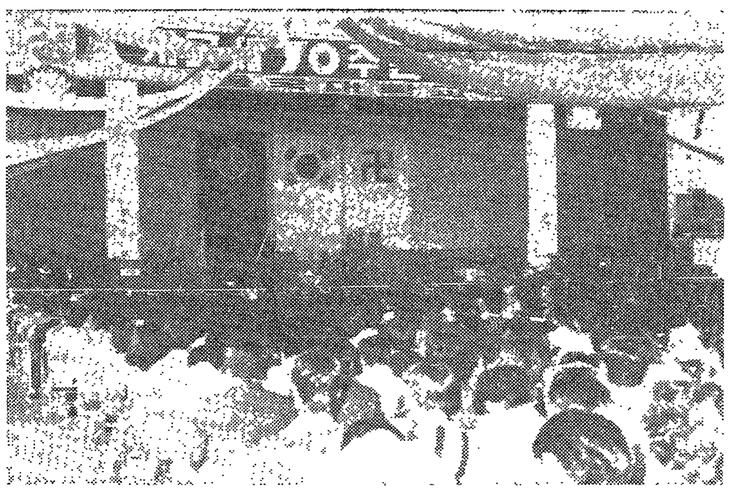
士如中正,
志道不慥,
利在斯人,
自歸佛者.

사람이 만일 바르고 두렷하여 (道)를 뜻해서 욕심 없으면, 이 한 사람 복덕은 한량 없나니…… 아아, 부처님께 의한 사람이여!

<法句經>

東國中興의 決意도 굳건히

開校 70周年 紀念式 盛況



◇開校70周年紀念式光景.

"民族的要請 부응하는 大學"

歷代總長들의 功勞者 表彰도

開校70周年을 맞이한 본교는 지난 8일(土) 오전10시부터 체육관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개최, 빛나는 大學史와 建學理念을 계승하여 東國中興에 能動的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李瑄根총장, 尹喜重이사장을 비롯한 內外貴賓다수와 재학생등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기념식은 三歸依禮, 東國大學校沿革報告, 總長式辭 理事長告辭順으로 진행되었다.

李總長은 式辭에서 『本校는 開校직후부터 閉校의 悲運을 겪으면서까지 日本帝國主義者의 싹쓰이며 해방후에는 극심한 思想的 混亂에도 民族의 正統性守護의 神的 傳統을 계승, 學問을 통한 東國의 中興과 國家發展의 대열에 앞장서야한 使命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大學의 機能을 발휘하여 國家民族社會의 요청에 부응하는 大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같은 자랑스러운 精神을 계승하여 東國의 古稀를 맞이하는 本校가 새로운 70년을 위한 飛躍의 里程標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金準鎬(共興産業社長) 同窓會 副會長이 代讀한 同窓會長祝辭에서 崔載九회장은 『國家와 겨레를 위한 봉사와 學問의 전당으로 더욱 튼튼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념식을 빛내기 위해 참석한 尹天柱석을 大總長은 『誠國精神을 발휘, 國家發展에 이바지하고 世界속의 大學으로 發展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본교를 위해 장기간 근속하고 근무한 敎授 職員에 대한 표창이 있었는데 표창자는 20년 근속자 1명, 20년근무자 2명, 10년 근속자 9명, 10년근무자 1명등 총 13명으로 이들에게는 이사장 표창장과 총장 상패및 부상으로 금 금메달이 수여되었다.

또한 본교 발전에 기여한 歷代 理事長 11명(追敍3명), 總長 3명(追敍2명), 총장 7명(追敍2명) 동창회장 2명등 총 21명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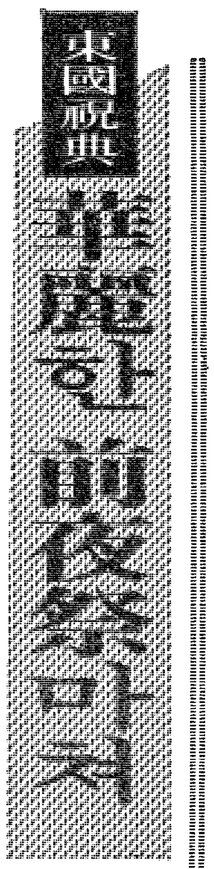
그리고 동창회 功勞者로 金東正(52·法·前本大法大學院長)同門등 8명이 감사패를 받았으며 모범근무자로 이태운수위장등 5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開校70周年紀念式光景.

◇李總長이 윷놀이 시범을 보이고있다.

民俗藝術祭서 鳳山탈춤 公演

13日 힘의 祭典·放送祭등 열려



東國祝典 華麗한 前夜祭 모습

11일부터 3일간 계속되는 東國祝典의 서막인 前夜祭가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祝典선언에서 李瑄根總長은 축사를 통하여 『人間의 古稀는 老壽를 의미하지만, 우리 東國의 古稀는 전통을 계승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東國의 古稀를 맞이하는 本校가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학문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상 시상에서 학술부문 金東旭교수(政外)등 3명, 봉사부문 金鍾泰교수(體)등 3명, 예술부문 李惠求교수(音)등 3명, 학생부문 金東勳군(政4)등 3명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오전11시부터 112학군단 사격대회가 오후3시부터 「동국인의 밤」이 정오부터 1시간동안 점심시간을 이용, 캠퍼스 곳곳에서 풍물놀이(농악), 봉산탈춤과 古典舞踊이 공연되었다.

이날 행사는 11일부터 3일간 계속되는 東國祝典의 서막인 前夜祭가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祝典선언에서 李瑄根總長은 축사를 통하여 『人間의 古稀는 老壽를 의미하지만, 우리 東國의 古稀는 전통을 계승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東國의 古稀를 맞이하는 本校가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학문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상 시상에서 학술부문 金東旭교수(政外)등 3명, 봉사부문 金鍾泰교수(體)등 3명, 예술부문 李惠求교수(音)등 3명, 학생부문 金東勳군(政4)등 3명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오전11시부터 112학군단 사격대회가 오후3시부터 「동국인의 밤」이 정오부터 1시간동안 점심시간을 이용, 캠퍼스 곳곳에서 풍물놀이(농악), 봉산탈춤과 古典舞踊이 공연되었다.

同窓會 定期總會 開催

會長에 崔載九 同門 二選

◇會長 崔載九

本校 同窓會 定期總會가 開校70주년 기념일인 8일 오후 2시부터 體育館에서 8백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同窓會 事務室에서는 同窓會長에 文泰植, 金順鎬등을 추대했다.

李瑄根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하여 모교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온 동창회원들의 공헌을 높이 치하하고 「앞으로 더욱 모교를 빛내는 同門, 모교를 돕는 동문들이 되어줄것」을 당부했다. 東國을 빛낸 同門들에게 축하뜻도 증정한 이날 총회에서는 74, 75년도 결산안을 통과시키고 朴完一同門의 監事報告도 있었다.

한편 총회가 끝난 오후4시부터는 本館앞 잔디밭에서 개교 70주년 자축연과 野외음악회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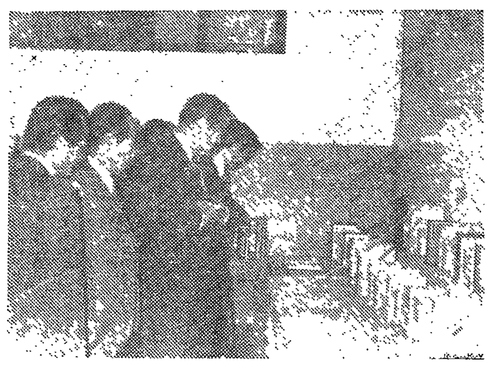
團長·副會長

文泰植、金遺腹 同門
黃明秀、朴恩會 同門
東女會長 鄭姓順 同門 二選

◇會長=崔載九(52·法·前本大法大學院長)▲副會長=文泰植(48·商·前部長·아주산업(株)社長)▲金遺腹(51·政·前本大外務部長·재향군인회 서울市支部長)▲黃明秀(53·政外·前本大外務部長·國會議員)▲朴恩會(60·英文·東女會長·한국자동차보험(株)社長)▲鄭姓順(57·英文·東女中校長)▲金鍾洙(59·경·國二·前本大商學部長·前國會議員)▲金東旭(52·法·前本大法大學院長·동아회 회장)▲金泰一(63·정·前정기자협회장·문화방송(주) 부사장)▲金東勳(69·경제·동부과장)▲金永柱(52·경·한국자보(주)상무이사)▲趙東成(64·사·은광유치원장)▲白恩順(64·사·은광유치원장)▲宋在雲(64·철·東西文化院代表)▲崔在福(57·국·國會비서관)▲金洋一(63·정·前정기자협회사무국장)▲李在詰(67·경제·대니·문풍상사 부장)▲任榮三(69·경제·동부과장)▲崔仁(68·경·대한산업(주) 부장)▲李濟坤(68·경·대한산업(주) 부장)▲韓국감정원본부회장(50·전문·체신부저금보험과장)▲崔體炯(57·경·한국탈포(주) 감사)▲裵鍾炯(62·철·철보기업(주) 대표)▲金永柱(51·정·화성산업대표)▲趙東成(52·경·한국자보(주)상무이사)▲白恩順(64·사·은광유치원장)▲宋在雲(64·철·東西文化院代表)▲崔在福(57·국·國會비서관)▲金洋一(63·정·前정기자협회사무국장)▲李在詰(67·경제·대니·문풍상사 부장)▲任榮三(69·경제·동부과장)▲崔仁(68·경·대한산업(주) 부장)▲李濟坤(68·경·대한산업(주) 부장)▲韓국감정원본부회장(50·전문·체신부저금보험과장)▲崔體炯(57·경·한국탈포(주) 감사)▲裵鍾炯(62·철·철보기업(주) 대표)▲金永柱(51·정·화성산업대표)▲趙東成(52·경·한국자보(주)상무이사)▲白恩順(64·사·은광유치원장)▲宋在雲(64·철·東西文化院代表)▲崔在福(57·국·國會비서관)▲金洋一(63·정·前정기자협회사무국장)▲李在詰(67·경제·대니·문풍상사 부장)▲任榮三(69·경제·동부과장)▲崔仁(68·경·대한산업(주) 부장)▲李濟坤(68·경·대한산업(주) 부장)▲韓국감정원본부회장

教員 26名 新規採用

教授 所屬變更등 小幅移動



◇佛書展示會 光景.

금년도 신규채용된 敎員 2명, 待遇專任講師 5명등 총26명으로 지난 3월24일 理事會 통과와 4월21일 文敎部의 승인을 얻음에 따라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게 된 것.

이번 신규채용된 교원은 助敎授 4명, 專任講師 11명, 待遇助敎授 2명, 待遇專任講師 5명등 총 27명.

또한 이번 교수진 보강에 따른 교수들의 소속변경은 다음과 같다.

▲會長=崔載九(52·法·前本大法大學院長)▲副會長=文泰植(48·商·前部長·아주산업(株)社長)▲金遺腹(51·政·前本大外務部長·재향군인회 서울市支部長)▲黃明秀(53·政外·前本大外務部長·國會議員)▲朴恩會(60·英文·東女會長·한국자동차보험(株)社長)▲鄭姓順(57·英文·東女中校長)▲金鍾洙(59·경·國二·前本大商學部長·前國會議員)▲金東旭(52·法·前本大法大學院長·동아회 회장)▲金泰一(63·정·前정기자협회장·문화방송(주) 부사장)▲金東勳(69·경제·동부과장)▲金永柱(51·정·화성산업대표)▲趙東成(52·경·한국자보(주)상무이사)▲白恩順(64·사·은광유치원장)▲宋在雲(64·철·東西文化院代表)▲崔在福(57·국·國會비서관)▲金洋一(63·정·前정기자협회사무국장)▲李在詰(67·경제·대니·문풍상사 부장)▲任榮三(69·경제·동부과장)▲崔仁(68·경·대한산업(주) 부장)▲李濟坤(68·경·대한산업(주) 부장)▲韓국감정원본부회장

◇助敎授(4名)▲金貴穆(倫理敎育科)▲朴昌鎭(行政科)▲趙熙榮(經營科)▲朴敎秀(林學科)

◇專任講師(11名)▲金仁德(佛敎科)▲金恒培(哲學科)▲文明大(美術科)▲趙丞燦(〃)▲金鎭煥(佛伽藍)▲許大澤(英文科)▲鄭基愛(行政科)▲李瑛周(經營科)▲金炅濟(法學科)▲金東俊(國史敎育科)

◇待遇敎授(4名)▲裵吉基(3월20일자)▲朴得錄(4월20일자)▲金基琓(4월20일자)▲權允赫(4월24일자)

◇待遇助敎授(2名)▲金後培▲洪淑子

◇待遇專任講師(5名)▲洪起三▲李永子▲朴璨浩▲李鍾燦▲李茂雄

◇主任敎授▲政外科=申基珍교수▲林學科=金昌浩부교수▲體敎科=鄭瑜世교수▲國史敎科=南都泳교수(師大學長역임)

◇造景科=孫昌求교수▲電子工科=金周弘교수▲土木科=南宣祐교수(警理)▲건축과=李琪燮조교수(警理)▲공경과=李炳圭(警理)

◇小속변경

▲佛敎科 徐京保敎授 僧伽科로 ▲敎養學部 李眞永敎授 印哲科로 ▲美術科 黃壽永敎授 史學科로 ▲行政大學院 申宗澤敎授 行政科로(겸임) ▲行政大學院 민병천副敎授 政外科로(겸임)

◇이상3월2일자

▲高工科 沈載厚敎授 化工科로 ▲高工科 金恒泰敎授 化工科로 ▲高工科 申鉉昭助敎授 化工科로 ▲工敎科 崔仁永敎授 電氣工科로

◇이상3월22일자

◇職員人事

▲朴鍾煥차장 命 演習林管理所 ▲李鍾錫書記補 命 學生課 ▲尹錫舜秘書 命 總長秘書室

〈이상 3월중〉

▲李丙天技員 命 農長 ▲趙在浩主事 命 寄宿舍主任 兼 職 ▲書記 宋富子 命 圖書館 ▲助敎 金容基 書記補 命 企劃室 ▲助敎 金美淑 書記補 命 企劃室 ▲總務 柳在燁 命 企劃室兼務 ▲薛永基 書記補 命 電子計算院 ▲助務 安星玉書記補 命 電子計算院

〈이상 4月中〉

新規採用

佛敎美術展 개막

敎授著書、佛書展도

本校 개교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되어온 佛敎圖書展示會와 佛敎美術品展示會가 지난10일 佛敎미술전시회 및 佛敎미술전시회 오전10시 李瑄根총장, 尹喜重이사장을 비롯 총장, 학생처장 등 교수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었다.

전시회의 전시기간은 개교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5월15일까지, 불교미술전시회는 6월10일까지 각각 도서관교수열람실과 G건물 박물관전시실에서 전시중이다.

佛敎圖書展示會

구처님 오신날 과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敎授著書 및 學生들의 學問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敎授의 使命을 더욱 중대하다는 데 뜻을 두고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

전시회는 5월15일까지 불교도서및 교수저서전시회는 6월10일까지 인데 각각 도서관교수열람실과 G건물 박물관전시실에서 전시중이다.

佛敎美術展示會

여기에 전시되고있는 작품은 本校 박물관이 소장하고있는 2千여점의 佛敎美術品들이다.

각전시품은 彫刻 繪畵 工藝 塔婆 金石文 寫經 木板 등으로 分類 展示되고있는데 특히 繪畵 부문은 國內 最初의 전시회로 그 意義가 크다.

本校 개교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되어온 佛敎圖書展示會, 교수저서전시회 및 佛敎미술전시회 오전10시 李瑄根총장, 尹喜重이사장을 비롯 총장, 학생처장 등 교수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었다.

전시회의 전시기간은 개교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5월15일까지, 불교미술전시회는 6월10일까지 각각 도서관교수열람실과 G건물 박물관전시실에서 전시중이다.

佛敎圖書展示會

구처님 오신날 과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敎授著書 및 學生들의 學問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敎授의 使命을 더욱 중대하다는 데 뜻을 두고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

佛敎美術展示會

여기에 전시되고있는 작품은 本校 박물관이 소장하고있는 2千여점의 佛敎美術品들이다.

각전시품은 彫刻 繪畵 工藝 塔婆 金石文 寫經 木板 등으로 分類 展示되고있는데 특히 繪畵 부문은 國內 最初의 전시회로 그 意義가 크다.

開校70周年 奬學基金

▲朴東昊(주)(58·일·진양수산 사장)	1백만원	▲朴永煥(50·전문·체신부저금보험과장)	2만원
▲金遺腹(52·경·재향군인회 서울시지부장)	1백만원	▲崔體炯(57·경·한국탈포(주) 감사)	3만원
▲東靑會員一同(會長·姜殷在 외17명)	1백만원	▲裵鍾炯(62·철·철보기업(주) 대표)	5만원
▲金明魯(58·화·세광무역(주) 사장)	50만원	▲金永柱(51·정·화성산업대표)	1만원
▲宋基成(49·전문·변호사)	50만원	▲趙東成(52·경·한국자보(주)상무이사)	5만원
▲金鍾洙(59·경·國二·前국회의원·동아회 부회장)	50만원	▲白恩順(64·사·은광유치원장)	5만원
▲鄭世鉉(57·史·숙대교수)	10만원	▲宋在雲(64·철·東西文化院代表)	3만원
▲朴完一(61·佛敎·서울시신도회장)	10만원	▲崔在福(57·국·國會비서관)	1만원
		▲金洋一(63·정·前정기자협회사무국장)	3만원
		▲李在詰(67·경제·대니·문풍상사 부장)	3만원
		▲任榮三(69·경제·동부과장)	2만원
		▲崔仁(68·경·대한산업(주) 부장)	3만원
		▲李濟坤(68·경·대한산업(주) 부장)	3만원
		▲韓국감정원본부회장	5만원

▲愼京燮(51·정치·변호사) 10만원
▲黃石淵(64·大院·부장관사) 20만원
▲鄭姓順(57·英文·東女中校長) 10만원
▲法五會(會長·태기연) 10만원
▲經濟科 9回同期會(會長·崔允植) 23만원
▲黃誠吉(64·법·東亞관재대표) 3萬원
▲權五甲(66·農經·금강종합사대표) 5만원
▲李武雄(67·佛·법성원진인) 3만원
▲吳鎭模(62·法·국토종합계획심의회 전문위원) 1만원

4월29일 現在
접수처=師大學長室

◇小計=5백9십9만원
累計=2천2백34만5천원

時事英語研究

6月号 값580원

◆時事英語社 刊◆
TOEFL總整理誌上Preview
映画 台詞 生活英語

◇ CHINA'S SCRUTABLE STRUGGLE
〈中共의 權力闘爭〉 by Victor Zorza
◆ CHINA, THE U.S. & SOVIET EXPANSIONISM
〈美·中共関係와 蘇聯의 팽창주의〉 by Robert S. Elegant
◇ The Mental Light
〈제퍼슨과 아담스의 書信〉 from The Saturday Evening Post
◆ Brezhnev's Iron Gauntlet
〈사하로프와 메드베도프의 브레즈네프 評価〉 from Le Monde
◇ Nuclear Power Plants: How Risky?
〈原子力発電은 과연 危険한가?〉 interview with H. Kendall & E. Mason
◆ Socialism with Two Faces
〈社会主義의 두 面貌〉 by C. L. Sulzberger

이달의 特別記事
☐ MEN & IDEAS ☐ James Callaghan論……梁璨圭 ■海外短篇■ Streets……By S. Dixon

名演説 Ford大統領 年頭教書…… 편집실
Deep Purple 外…… 徐丙厚
第2外国語 独逸語 誌上講座·獨逸文化院
医学·留学·移民·英語·試験 Special English…… 편집실
English This Way…… 편집실
고시영어 예상문제…… 吳済雲
英語 어휘征服論…… 任永宰
●連載 칼럼 英作文 講座 / 海外 論調 / 이달의 時事英語 / 퀴즈 / 語源千一夜

現代 知性人의 生活 英語 雜誌
英語世界 6월호 값450원

이달의 主要記事
●成功의 條件
The Critics Can Help You Succeed…… Nelson Boswell
●상대편을 읽는 秘訣
A Complete Guide to Reading Heads…… Susanne Garrett
●질문의 화살
Attack by Question…… Jacques Lalanne

特輯 피로를 이기는 方法 〈How to Stop Being Tired〉
사랑을 아는 秘訣 〈Learning to Love〉

連載 이집트 神話 / 思索과 瞑想 / 名作속의「러브·센」〈카라마조프家의 형제들〉
이달의 映画 THEY CALL ME TRINITY
海外短篇 Crow Call…… Lois Lowry
現代英語講座 Time·Newsweek 英語 研究 / 英語会話 / 名文章 研究 / 英作文 / 취직·입시 대비 영어모의 시험문제
教養講座 古典音楽 / 팝 송 / 스포츠

時事英語社가 大学生을 위해 特別 企劃한 英文文庫
世界名作 英語学習文庫
辞典없이 名作을 읽는 RV方式 (Ready Vocabulary)
全60巻 各巻 300원 均一

1	아라비안 나이트	21	허클베리 핀의 冒険 …… M. Twain	41	스케치 북 …… W. Irving
2	로빈 훗 外11篇	22	사일러스 마아너 …… G. Eliot	42	셰익스피어 이야기 …… M. & C. Lamb
3	행복한 王子 …… O. Wilde	23	제인 에어 …… C. Brontë	43	오우 헨리 短篇集 …… O. Henry
4	걸리버旅行記 - 小人国편 …… J. Swift	24	프랭클린 自叙伝 …… B. Franklin	44	작은 아씨들 …… L. M. Alcott
5	걸리버旅行記 - 大人国편 …… J. Swift	25	돈 키호오테 …… M. Cervantes	45	콜린즈 短篇集 …… W. Collins
6	로빈슨 크루우소우 …… D. Defoe	26	王子와 거지 …… M. Twain	46	포우 短篇集 …… E. A. Poe
7	그리이스神話	27	톰 소오여의 探偵 …… M. Twain	47	원더북 …… N. Hawthorne
8	톰 소오여의 冒険 …… M. Twain	28	올리버 트위스트 …… C. Dickens	48	지킬博士와 하이드씨 … R. L. Stevenson
9	聖書 이야기	29	月長石 …… W. Collins	49	헨리 라이크로프트의 手記 … G. Gissing
10	신배드의 冒険	30	아브라함 링컨伝 …… A. Lincoln	50	黒馬 이야기 …… A. Sewell
11	白雪公主 …… J. & W. Grimm	31	黄金江의 임금님 …… J. Ruskin	51	奴隷의 굴레를 벗고 …… B. Washington
12	아이반호우 …… W. Scott	32	朱紅글씨 …… N. Hawthorne	52	프랑켄쉬타인 이야기 …… M. Shelley
13	이노크 아아든 …… A. Tennyson	33	暴風의 언덕 …… E. Brontë	53	두 都市 이야기 …… C. Dickens
14	피이터 팬 …… J. M. Barrie	34	데이지 밀러 …… H. James	54	엉클 톰스 캐빈 …… H. Stowe
15	그림 童話集 …… J. & W. Grimm	35	野性의 절규 …… J. London	55	데이빗 카퍼피일드 …… C. Dickens
16	트와이스토울드 테일즈 … N. Hawthorne	36	키다리 아저씨 …… J. Webster	56	自殺클럽 …… R. L. Stevenson
17	三銃士 …… A. Dumas	37	체호프 短篇集 …… A. Chekhov	57	宝物섬 …… R. L. Stevenson
18	피프티 페이머스 스토오리즈 … J. Baldwin	38	크리스마스 캐럴 …… C. Dickens	58	黄金벌레 …… E. A. Poe
19	어머니 이야기 …… H. Andersen	39	톨스토이 短篇集 …… L. Tolstoy	59	어셔家의 没落 …… E. A. Poe
20	바보 이반 …… L. Tolstoy	40	모파상 短篇集 …… G. Maupassant	60	마지막 授業 …… A. Daudet

English is a tool of success.
英語책은 時事英語社
時事英語社 서울特別市 鍾路区 貫鉄洞 5의3 (29) 6621~3 (26) 6795 (75) 5064
全国書店에서 発売中

수리보

衆生濟度

행복을 상징하는 노래로 한 것으로 상징한 것이 탄생의 의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삶을 부처의 삶이 되도록하리라』 즉 이 생을 종생제도하는 것이다.

해마다 부처님의 탄생일을 맞이할 때만이라도 우리는 부처님의 어느 지난 일이 옛날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태어난 어떤아기의 첫소리로 받들기만 하지말고, 내 가슴 깊숙이에서 울어나는 나의 소리요 참 마음의 외침으로 삼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실로 부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金煥泰〉

세상으로 태어나면서 呱呱고도는 인생(중생)의 수많은 소리를 낸다. 그것 데바꾸(輪廻)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한 생애를 누릴 수도 있으며, 역사에 이 외침과 이와 같은 소리는 서로의 올바른 소리로 돌이켜 생애를 그것으로 선포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그 소리는 역시 대장부의 우렁찬 외침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成佛하여 돌아가기 전 45년간 설법하셨다는데 표창자는 20년 근속자 2명, 10년 근속자 9명, 10년근무자 2명, 10년 근속자 1명등 총 13명으로 이들에게는 이사장 표창장과 총장 상패및 부상으로 금메달이 수여되었다.

또한 본교 발전에 기여한 歷代 理事長 11명(追敍3명), 總長 3명(追敍2명), 총장 7명(追敍2명) 동창회장 2명등 총 21명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그리고 동창회 功勞者로 金東正(52·法·前本大法大學院長)同門등 8명이 감사패를 받았으며 모범근무자로 이태운수위장등 5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馬鳴菩薩의 『佛所行讚』(卷第一 生品)에는, 부처의 소리를 낸다.

나는 오직 이 일생에 서 마땅히 일체의 중생을 건지리라』고 말하였다고 말하였다.

물론 발음 태어난 갓난아기가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준 부처님의 생애는 바로 그와 같은 탄생이 신앙적인 사실로 나타나지 않을수가 없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이

時事英語社 刊
TOEFL總整理誌上Preview
映画 台詞 生活英語

師範大學敎育의 强化方案

全國사범대학 聯合會가 主催한 제4회 師範大學長會議과 지난달 23日(金) 裡里 圓光大學校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南都泳(本校 師大學長) 박사는 「師範大學敎育의 强化方案」이란 題目으로 主題發表를 가졌다. 이발표에서 南박사는 사대교육의 제점을 검토하고 새 시안의 방안을 제시했는데 다음은 그 요약한 내용이다.

南都泳
<博士·文學·師範大學長>

1、師範大學敎育의 反省

해방후 수립된 동등교원 養成體制는 사범대학을 비롯하여 2년제 中等敎員양성소, 종교사자격 검정제, 敎職課程에 의한 資格認定制 등으로 이루어진후 몇번 부분적인 수정을받아 오늘날은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敎育과정, 육가에 의한 준교사 자격시험에의한 자격인정을 합으로써 그 기본 체제상에서는 거반같이 되어져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런한 체제를 통해서 중등교육은 質量的으로 말할 것도 없이 현저한 발전을 보아왔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중등교원양성제를 엿볼때 거기에는 허점과 시행착오가 없지않았다. 조수적를 길러내는 先進歐美制度에 안도되어 그 제도를 우리 역사적 현실에 알맞도록 濾過하여 取捨選擇하는 과정을 갖지못하고 맹목적으로 모방하였기 때문이다. 먼우기 最的인 면에 치우친 敎員양성정책은 70년대에 와서 교원需給의 착잡과 國私立師大의 차별적 지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기에 이르렀다.

교원의 質적하를 가져오게한 諸要因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內實을 期하게 하는 일이다. 즉 긴박한 국제정세아래 이를 극복하며, 産業社會에 적응하여 민족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과거의 量爲主에서 質의주로, 모방에서 國적교육으로 정책회시킬 기위해, 현행師大法 교원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마땅히 폐지하고 교원의 양성은 사범대학은 그 존재를 두텃이 할 것이다.

2、師範大敎育의 重要性

機械文明과 人間疎外의 현상이 심각한 오늘에 있어서 世界인류가 안고있는 가장 주요한 苦悶은 喪失된 人間性을 여하히 回復할 것이냐에 있다. 인간성회복을 위한 비판 學校敎育에서만 必要로하는것이 아니라 家庭, 一般社會에서 平生敎育을 통해서 수행되어져야할 全體的인 次元의 것이다. 그러나 學校는 그중에서도 敎育의 設立된 機構로서 다른 어느社會나 機構보다도 이를 위한 중은 責徵이 되어야한다. 師範大學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임은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중등교원양성제를 엿볼때 거기에는 허점과 시행착오가 없지않았다. 조수적를 길러내는 先進歐美制度에 안도되어 그 제도를 우리 역사적 현실에 알맞도록 濾過하여 取捨選擇하는 과정을 갖지못하고 맹목적으로 모방하였기 때문이다. 먼우기 最的인 면에 치우친 敎員양성정책은 70년대에 와서 교원需給의 착잡과 國私立師大의 차별적 지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기에 이르렀다. 교원의 質적하를 가져오게한 諸要因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內實을 期하게 하는 일이다. 즉 긴박한 국제정세아래 이를 극복하며, 産業社會에 적응하여 민족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과거의 量爲主에서 質의주로, 모방에서 國적교육으로 정책회시킬 기위해, 현행師大法 교원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마땅히 폐지하고 교원의 양성은 사범대학은 그 존재를 두텃이 할 것이다.

3、敎員需給計劃에 蹉跌이 없는 政策이 樹立되어야 한다.

敎員의 需給政策은 사범대학强化策과 직결된다. 문교부등계에의하면 이미 供給過이 需要의 3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敎員需給計劃의 차질로 말미암은 供給過剩은 결과적으로 師大의 質低下뿐 아니라, 敎職을 脫視케하는 경향을 만들고 또 國家 個人에게 막대한 人力과 經費를 낭비케 하고있다.

需給政策의 確立을 現在 그 是正이 지적되고 있는 順位考査制나, 막대한 經費를 要하는 國家考試制같은 것을 不必要하게 만들것이며 그런 經費는 師大敎育成에 投入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現行 敎職科目 이수에 의한 교원부자여부를 폐폐 폭수과목을 제외하고는 점차 피지되어야 할것이며, 또한 敎員需給策으로서 師大生이 沈滯되기 쉬운 것을 막기 위해 그 選定策이 수립되어야 할것이다. 만약 過渡的으로 敎員任用順位考査制나 또는 國家考試制를 實施해야만 될 경우는, 國私立 師範大學의 차별을 없애고 師大出身에 限해서는 師大學長의 內申추천서 (性格, 適性, 國家觀, 精神姿勢등 교사로서의 資質) 및 성적 종합성적으로 70%를認定하고 나머지 30%만 전공과목을 試驗치루어 任用케 함이 타당할 것이다.

4、中·高等學校敎師養成의 分離

現在 中學校와 高等學校制度는 중학교가 80년대에 義務敎育延長으로 됨에 그 敎育目標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中·高校 敎師養成制는 장차 분리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5、敎員需給計劃에 蹉跌이 없는 政策이 樹立되어야 한다.

敎員의 需給政策은 사범대학强化策과 직결된다. 문교부등계에의하면 이미 供給過이 需要의 3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敎員需給計劃의 차질로 말미암은 供給過剩은 결과적으로 師大의 質低下뿐 아니라, 敎職을 脫視케하는 경향을 만들고 또 國家 個人에게 막대한 人力과 經費를 낭비케 하고있다.

需給政策의 確立을 現在 그 是正이 지적되고 있는 順位考査制나, 막대한 經費를 要하는 國家考試制같은 것을 不必要하게 만들것이며 그런 經費는 師大敎育成에 投入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現行 敎職科目 이수에 의한 교원부자여부를 폐폐 폭수과목을 제외하고는 점차 피지되어야 할것이며, 또한 敎員需給策으로서 師大生이 沈滯되기 쉬운 것을 막기 위해 그 選定策이 수립되어야 할것이다. 만약 過渡的으로 敎員任用順位考査制나 또는 國家考試制를 實施해야만 될 경우는, 國私立 師範大學의 차별을 없애고 師大出身에 限해서는 師大學長의 內申추천서 (性格, 適性, 國家觀, 精神姿勢등 교사로서의 資質) 및 성적 종합성적으로 70%를認定하고 나머지 30%만 전공과목을 試驗치루어 任用케 함이 타당할 것이다.

6、敎師資格과 任用上의 問題

敎育資格制度와 任用制度는 師大敎育制度와 敎員質向上에 至大한 영향을 주고있다. 따라서 敎員資格의 認定은 독수한 학문을 제외하고는 사범대학졸업생에 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任用에 있어서도 國私立師大區分없이 전원이 任用되도록 講究되어야 한다. 이 경우 私立師大도 國立師大와 마찬가지로 敎師養成機關이 되도록 政府는 그 育成策을 적극 장구, 實踐해 나가야 할것이다. 그리고 敎育은 國家建設의 百年之大計이니 만큼 종래에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오는 오늘의 교육의 質低下가 기초확된 社會의 人間性 상실에서 온것이니 만큼 師範敎育의 강화를 통해서 특철한 民族觀·國家觀을 가진 인간을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7、認可體制의 强化

師大認可體制를 强化하는 것은 師大敎育을 强化하는 方策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엄격한 基準을 設定하고 師範大 評價委員會를 설치하여, 不合大學은 整備하고, 充實한 大學은 支援을 해야 할것이다. 支援方策으로는 學科의 增設, 학생모집정원의 增員, 研究費 및 奬學金의 지급확대등 적극적 施策을 강구하며, 整備方策으로서는 師範大學 學科의 廢止, 학생모집 정지등의 措置를 取한다.

8、師範大學相互間의 協議體를 통하여 敎育效果의 극대화를 꾀

師範大學敎育의 質을 높이기 위한 方法으로는 敎育學的 지식및 學習에 있어서의 누가적 側面을 가지고 있다. 물론 敎育하는 師大는 물질적 및 人的資源이 부족한 현 韓國의 여건하에서 師大교육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반드시 全國師大協議體를 조직 상호간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政府는 이런 協議體를 育成하여야 하며 國·私立師大는 모두이에 參加하여,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타 각연구기관및 지원기관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 師大强化方案을 모색·실천해야한다.

二、運營面에서 改編

①敎科課程의 師大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敎科課程을 刷新되어야 한다. 물師大履修科目(一般敎養, 敎職科目, 專攻科目)을 精選되고 現場指導에 알맞게 재편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各 師大敎授로구성된 敎科課程委員會같은 것을設置하고 가능한 限 全國師大에서 統一된 강좌가 설치되는 것이바람직하다.

②卒業綜合試驗 및 論文制度의 효果的인 실시

師大敎育의 學位授與의 質을 높이기 위하여 學科의 性格에 따라 綜合試驗 또는 論文을 課하도록 함이 옳다고 본다. 綜合試驗을 課하되 종합시험 前學期까지의 學業成績이 B學點 以上인 학생에게 응시자격을 주며, 卒業論文을 課하는 科의경우에도 學業成績이 B學點 以上인 者에게 論文 제출의 자격을주고 그 심사방법은 2人의 교수가 담당 하도록 한다.

綜合試驗 및 論文 提出은 1次 不合格된 경우, 2回에 限하여 再시험 및 論文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③副專攻制度의 强化

現代學問의 發展趨勢는 隣接學問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있음은 말할 것도 없으며, 副專攻科目의 設置는 師大敎育의 質的인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副專攻制度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同系列內에서 하거나 또는 同系列內에서 20학점을 課하는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4、敎職科目의 刷新과强化

현재 교직敎科의 분야별 履修課程을 다음과 같다. 즉 ①敎育原理및 哲學分野 4학점 이상 ②敎育心理分野 2학점 이상 ③敎育課程및 方法 分野 2학점이상 ④各科 指導法 2학점이상 그리고 ⑤敎育實習 2학점 이상 등 계 最低 18학점 이상의 學點履修를 요구하고 있다. 이중에서 「學校의 地域社會」 「各科指導法」 및 「敎育實習」 은 필수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외는 各 大學의 실정에 따라 履修시키고 있는 관계상 相互間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敎職科目이 師大敎科目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로서 그 비중은 너무 작다. 20%이상은 확보되어야 하고 그 속에 확고한 敎職觀을 위한 「敎育哲學」 이나 「敎師論」 등은 필수로 지정되어야 하고, 各科指導法은 현재에 2學點 정도로 늘려 교과지도법의 방법과 내용 (敎材硏究·分析등) 등으로 나누어 深化되어야 하며 또한 현대의 科學技術에 바탕을 둔 敎育効果의 技術提高에 필수적인 敎育工學的 지식의 습득이 부과되어야 한다.

5、敎生實習의 强化

敎生實習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師範大學 졸업반에 부과되는 敎生實習 기간은 대체로 1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형식적인 實習로 끝난다. 附屬機關에서 교단실습을 수행하는 이외에 적어도 2개월 정도는 敎師가 부족한 벽지농촌에 배치되어 실습을 통해서 地域社會學校 전체에 봉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것 또한 현재의 사범대학 교육목표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6、奬學制度擴充

師範大學에 관한 한 奬學制度를 확대하여 우수한 人材가 自願하도록 유도하고 卒業後에는 교사로서의 의무화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7、敎職使命의 學園紛造成

師範大學生은 적어도 3년 이상의 기숙사 생활을 義務化 할 필요가 있다.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바람직한 교사로서의 精神姿勢를 고취하고 集團生活을 통해서 組織과 민족을 위하는 總和를 다하는 힘을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結論的으로 師大敎育의 成敗는 全人的인 敎師人의 육성을 통한 民族과 國家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원양성을 가져오게한 안서 지적한 諸要因을 과감히 시정되어야 하며 師大가 名實 共히 人間을 기르는 專門職의 中等敎員 養成機關이 되도록 政府는 그 育成策을 적극 장구, 實踐해 나가야 할것이다. 그리고 敎育은 國家建設의 百年之大計이니 만큼 종래에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오는 오늘의 교육의 質低下가 기초확된 社會의 人間性 상실에서 온것이니 만큼 師範敎育의 강화를 통해서 특철한 民族觀·國家觀을 가진 인간을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開校70周年에 부치는 祝辭

尹天柱
<서울大總長>

東國大學校 學生 여러분, 그리고 敎授, 職員 여러분, 또한 總長님, 東國學院 理事長님이하 여러분. 오늘 本人이 貴校의 開校70周年 紀念式에서 祝辭를 드리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은 全國 綜合大學總長會議 幹事長의 자격으로 이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全國綜合大學總長을 대표하여 開校70周年을 맞은 貴校에 대하여 심심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갖이 안정된 번영을 누려던 때로는 이것에서 解放되었으므로 더욱 일찍이 되어 獨立을 이룩하였으나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貴重한 人命을 희생하는 등 국가발전에 기여할 때 민족교육관이 투철한 교원이 양성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훌륭한 총장님이 창조를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확립하는 길밖에 없다고 믿는다.

Ⅱ、師範大敎育의 重要性

機械文明과 都市化가 급격히 促進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世界인류가 안고있는 가장 주요한 苦悶은 喪失된 人間性을 여하히 回復할 것이냐에 있다. 인간성회복을 위한 비판 學校敎育에서만 必要로하는것이 아니라 家庭, 一般社會에서 平生敎育을 통해서 수행되어져야할 全體的인 次元의 것이다. 그러나 學校는 그중에서도 敎育의 設立된 機構로서 다른 어느社會나 機構보다도 이를 위한 중은 責徵이 되어야한다. 師範大學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임은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중등교원양성제를 엿볼때 거기에는 허점과 시행착오가 없지않았다. 조수적를 길러내는 先進歐美制度에 안도되어 그 제도를 우리 역사적 현실에 알맞도록 濾過하여 取捨選擇하는 과정을 갖지못하고 맹목적으로 모방하였기 때문이다. 먼우기 最的인 면에 치우친 敎員양성정책은 70년대에 와서 교원需給의 착잡과 國私立師大의 차별적 지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기에 이르렀다. 교원의 質적하를 가져오게한 諸要因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內實을 期하게 하는 일이다. 즉 긴박한 국제정세아래 이를 극복하며, 産業社會에 적응하여 민족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과거의 量爲主에서 質의주로, 모방에서 國적교육으로 정책회시킬 기위해, 현행師大法 교원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마땅히 폐지하고 교원의 양성은 사범대학은 그 존재를 두텃이 할 것이다.

3、敎員需給計劃에 蹉跌이 없는 政策이 樹立되어야 한다.

敎員의 需給政策은 사범대학强化策과 직결된다. 문교부등계에의하면 이미 供給過이 需要의 3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敎員需給計劃의 차질로 말미암은 供給過剩은 결과적으로 師大의 質低下뿐 아니라, 敎職을 脫視케하는 경향을 만들고 또 國家 個人에게 막대한 人力과 經費를 낭비케 하고있다.

需給政策의 確立을 現在 그 是正이 지적되고 있는 順位考査制나, 막대한 經費를 要하는 國家考試制같은 것을 不必要하게 만들것이며 그런 經費는 師大敎育成에 投入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現行 敎職科目 이수에 의한 교원부자여부를 폐폐 폭수과목을 제외하고는 점차 피지되어야 할것이며, 또한 敎員需給策으로서 師大生이 沈滯되기 쉬운 것을 막기 위해 그 選定策이 수립되어야 할것이다. 만약 過渡的으로 敎員任用順位考査制나 또는 國家考試制를 實施해야만 될 경우는, 國私立 師範大學의 차별을 없애고 師大出身에 限해서는 師大學長의 內申추천서 (性格, 適性, 國家觀, 精神姿勢등 교사로서의 資質) 및 성적 종합성적으로 70%를認定하고 나머지 30%만 전공과목을 試驗치루어 任用케 함이 타당할 것이다.

6、敎師資格과 任用上의 問題

敎育資格制度와 任用制度는 師大敎育制度와 敎員質向上에 至大한 영향을 주고있다. 따라서 敎員資格의 認定은 독수한 학문을 제외하고는 사범대학졸업생에 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任用에 있어서도 國私立師大區分없이 전원이 任用되도록 講究되어야 한다. 이 경우 私立師大도 國立師大와 마찬가지로 敎師養成機關이 되도록 政府는 그 育成策을 적극 장구, 實踐해 나가야 할것이다. 그리고 敎育은 國家建設의 百年之大計이니 만큼 종래에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오는 오늘의 교육의 質低下가 기초확된 社會의 人間性 상실에서 온것이니 만큼 師範敎育의 강화를 통해서 특철한 民族觀·國家觀을 가진 인간을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7、認可體制의 强化

師大認可體制를 强化하는 것은 師大敎育을 强化하는 方策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엄격한 基準을 設定하고 師範大 評價委員會를 설치하여, 不合大學은 整備하고, 充實한 大學은 支援을 해야 할것이다. 支援方策으로는 學科의 增設, 학생모집정원의 增員, 研究費 및 奬學金의 지급확대등 적극적 施策을 강구하며, 整備方策으로서는 師範大學 學科의 廢止, 학생모집 정지등의 措置를 取한다.

8、師範大學相互間의 協議體를 통하여 敎育效果의 극대화를 꾀

師範大學敎育의 質을 높이기 위한 方法으로는 敎育學的 지식및 學習에 있어서의 누가적 側面을 가지고 있다. 물론 敎育하는 師大는 물질적 및 人的資源이 부족한 현 韓國의 여건하에서 師大교육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반드시 全國師大協議體를 조직 상호간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政府는 이런 協議體를 育成하여야 하며 國·私立師大는 모두이에 參加하여,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타 각연구기관및 지원기관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 師大强化方案을 모색·실천해야한다.

二、運營面에서 改編

①敎科課程의 師大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敎科課程을 刷新되어야 한다. 물師大履修科目(一般敎養, 敎職科目, 專攻科目)을 精選되고 現場指導에 알맞게 재편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各 師大敎授로구성된 敎科課程委員會같은 것을設置하고 가능한 限 全國師大에서 統一된 강좌가 설치되는 것이바람직하다.

②卒業綜合試驗 및 論文制度의 효果的인 실시

師大敎育의 學位授與의 質을 높이기 위하여 學科의 性格에 따라 綜合試驗 또는 論文을 課하도록 함이 옳다고 본다. 綜合試驗을 課하되 종합시험 前學期까지의 學業成績이 B學點 以上인 학생에게 응시자격을 주며, 卒業論文을 課하는 科의경우에도 學業成績이 B學點 以上인 者에게 論文 제출의 자격을주고 그 심사방법은 2人의 교수가 담당 하도록 한다.

綜合試驗 및 論文 提出은 1次 不合格된 경우, 2回에 限하여 再시험 및 論文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③副專攻制度의 强化

現代學問의 發展趨勢는 隣接學問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있음은 말할 것도 없으며, 副專攻科目의 設置는 師大敎育의 質的인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副專攻制度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同系列內에서 하거나 또는 同系列內에서 20학점을 課하는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4、敎職科目의 刷新과强化

현재 교직敎科의 분야별 履修課程을 다음과 같다. 즉 ①敎育原理및 哲學分野 4학점 이상 ②敎育心理分野 2학점 이상 ③敎育課程및 方法 分野 2학점이상 ④各科 指導法 2학점이상 그리고 ⑤敎育實習 2학점 이상 등 계 最低 18학점 이상의 學點履修를 요구하고 있다. 이중에서 「學校의 地域社會」 「各科指導法」 및 「敎育實習」 은 필수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외는 各 大學의 실정에 따라 履修시키고 있는 관계상 相互間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敎職科目이 師大敎科目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로서 그 비중은 너무 작다. 20%이상은 확보되어야 하고 그 속에 확고한 敎職觀을 위한 「敎育哲學」 이나 「敎師論」 등은 필수로 지정되어야 하고, 各科指導法은 현재에 2學點 정도로 늘려 교과지도법의 방법과 내용 (敎材硏究·分析등) 등으로 나누어 深化되어야 하며 또한 현대의 科學技術에 바탕을 둔 敎育効果의 技術提高에 필수적인 敎育工學的 지식의 습득이 부과되어야 한다.

5、敎生實習의 强化

敎生實習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師範大學 졸업반에 부과되는 敎生實習 기간은 대체로 1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형식적인 實習로 끝난다. 附屬機關에서 교단실습을 수행하는 이외에 적어도 2개월 정도는 敎師가 부족한 벽지농촌에 배치되어 실습을 통해서 地域社會學校 전체에 봉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것 또한 현재의 사범대학 교육목표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6、奬學制度擴充

師範大學에 관한 한 奬學制度를 확대하여 우수한 人材가 自願하도록 유도하고 卒業後에는 교사로서의 의무화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7、敎職使命의 學園紛造成

師範大學生은 적어도 3년 이상의 기숙사 생활을 義務化 할 필요가 있다.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바람직한 교사로서의 精神姿勢를 고취하고 集團生活을 통해서 組織과 민족을 위하는 總和를 다하는 힘을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結論的으로 師大敎育의 成敗는 全人的인 敎師人의 육성을 통한 民族과 國家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원양성을 가져오게한 안서 지적한 諸要因을 과감히 시정되어야 하며 師大가 名實 共히 人間을 기르는 專門職의 中等敎員 養成機關이 되도록 政府는 그 育成策을 적극 장구, 實踐해 나가야 할것이다. 그리고 敎育은 國家建設의 百年之大計이니 만큼 종래에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오는 오늘의 교육의 質低下가 기초확된 社會의 人間性 상실에서 온것이니 만큼 師範敎育의 강화를 통해서 특철한 民族觀·國家觀을 가진 인간을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創造志向的 祝祭를

社說

지난 10日 前夜祭을 始點으로 뜻깊은 開校70周年을 紀念하는 東國祝典이 開幕되었다. 5月의 찬란한 太陽아래 新綠의 兩山기슭을 香氣로운 薰風이 스쳐가는 三寶의 뭘퍼스에는, 젊음의 意氣와 知性이 한데 뭉쳐 솟기로운 調和를 이룬 祝典의 祭國氣가 高潮되고있다. 이때 우리 東國人은 이 祝典에서 有終의 美를 거두기 위하여 祝典의 意義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積極參與하여야 할것이다.

이번 東國祝典은 開校70周年을 맞이하여 열리다는데 큰 意義가 있을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도 70歲를 산다는것은 어려운 일이라 한다. 우리 大學史上 빛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東國人의 가슴에 傳統에서 오는 矜持와 未來에 대한 發展的 希望을 가져다 준다. 한 나라를 發展시키는 경우 創業도 힘이 들지만, 그보다도 守成은 이에 못지않게 더 어렵다고 한다. 先人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傳統을 繼承 發展하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값있는 일이다. 知識偉人 스스로 欣元을 달리하는 것이다. 東國의 빛나는 傳統을 繼承하고 우리 東國人은, 東國의 이름을 보다더 크게 來日에 빛내기 위해 總和團結하여야 할것이며, 그러한 躍進의 에너지는 東國祝典을 통하여 크게 遊成되어야 할 것이다.

祝典의 意義는 根源的으로 人間本性에서 찾을 수 있다. 人間의 本性은 多面的으로 追求되었다. 特히 獨逸觀念論哲學에서는 理性的人間을 强調하여 地上的存在로서의 人間을 感情的人間이라하여 서로 對立지웠다. 한편 機械文明의 發展은 實用主義를 낳게되고 工作的人間(homo faber)의 人間觀이 形成되었다. 그후 다시 動物이 外界의 刺戟에 대하여 即刻的 反應을 일으키는데 反하여 人間은 言語·神話·藝術·宗敎등의 象徵을 媒介로한다는 意味에서 象徵的人間이라는 類型이 提示되었고 또이른바 「호이징가」의 유희적 遊戲的人間(homo ludens)의 카테고리를 찾아냈다. 慣習·道德을 비롯하여 日常生活을 여러 生活規範의 拘束을 받아 緊張狀況에 있으므로 때로는 이것에서 解放되는 것이 또한 그곳이다. 그곳이 곧 祝祭이다. 祝祭는 나의순수한 自我를 回復하는 것이다. 祝祭에서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祭祀, 祝典, 謝肉祭 등

般若智는 智慧의 極致

「너」와 「나」를 「하나」로 묶는 智慧必要

不退轉의 倫理的 決意

〈佛教大印哲科教授〉
徐 景 洙

1

지혜를 뜸시 重說하는 것은 印度思想의 특징이다。印度宗教의 理想인 涅槃에 이르는 길에도 信愛의 길과 함께 지혜의 길이 있다。지혜에 의하여서도 涅槃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佛教의 教祖「부처님」의 原語 붓다(Buddha)는 깨친다、깨닫는다의 뜻을 가진 語根에서 派生된 말이다。그래서 漢譯은 「覺」 또는 「悟」라는 말로 옮겼다。覺이나 悟는 깨친다는 뜻인데、이 말들의 語感은 智慧와 가깝다。깨달았다는 말의 뜻은 알았다는 말의 뜻과 가깝다。부처님을 깨달아서 한 분이다 이치를 깨달아 삶으로써 부처님이 된 것이다。여기서 깨달아「삶」으로써 부처님이「된」것 즉 삶(智慧)이 곧 됨(成)으로 직결되는 사실은 重要하다。어떤 이치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은 곧 그 이치와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印度 聖典 우파니샤드에 다음같은 귀절이 있다。『네가 最高의 부라흐마가 부엇인지 안다면、네가 곧 부라흐마다』라고。神秘思想의 極致가 곧 되는 것 즉 영의 極致에 이른다。부처님은 道를 깨치고 앎을 成道하여 부처가 된것이다。부처님이 出家하여 宗教的 修行끝에 부처가 됨을 佛教用語에서는 「成道」라고 한다。道를 이룩하여 道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와같이 成道에 이르게하는 智慧를 佛教에서는 「般若」라고 한다。이같은 智慧를 보통 쓰는 지혜와 구별하기위하여 漢譯家들도 般若의 音譯을 그대로 사용하였다。般若와 智慧를 合成하여 般若智、또는 般若慧라고 한다。그러므로 般若智는 無明에 의한 分別知를 止揚하는 分別知를 말한다。無明은 밝음과 어둑、陽地와 陰地를 갈라 놓는다。밝음과 어둑、陽地와 陰地는 서로 不相容의 緊張關係에 놓여있기 때문에 不和와 反目이 항시 도사리고 있어 平和보다는 싸움이 잘어날 危險이 잠재해 있다。나와 너、나와 이웃을 갈라 놓아 對決을 조장하는 것이 分別知다。兩斷하는 分別知를 낳는 成道이며 宗教的 解脫을 가로막는 無明의 밤을 깨뜨리는 智慧의 光明이다。이같은 般若의 智慧가 종교적 使命을 具現하기 위하여는 평가지 조건이 앞서야한다。

2

첫째、般若智는 밝아야 한다。모든 그늘을 다 비쳐주는 철저한 밝음이다。따라서 나와 이웃을 갈라 놓아 對立과 對決을 조장하는 것이 分別知를 낳는 無明의 밤을과 어둑、陽地와 陰地를 갈라 놓는다。밝음과 어둑、陽地와 陰地는 서로 不相容의 緊張關係에 놓여있기 때문에 不和와 反目이 항시 도사리고 있어 平和보다는 싸움이 잘어날 危險이 잠재해 있다。나와 이웃을 갈라 놓아 對決을 조장하는 것이 分別知를 낳는 成道이며 宗教的 解脫을 가로막는 無明의 밤을과 어둑、陽地와 陰地를 갈라 놓는다。밝음과 어둑、陽地와 陰地는 서로 不相容의 緊張關係에 놓여있기 때문에 不和와 反目이 항시 도사리고 있어 平和보다는 싸움이 잘어날 危險이 잠재해 있다。

그래서 般若智는 無明에 의한 分別知보다는 無分別知를 主張한다。般若智는 또、二分法의 判斷作用까지를 止揚하려고 한다。그러므로 日常的인 言表보다는 言表以前의 沈默을 擇한다。言表하면 이미 是非를 가리는 分別作用이 앞서기 때문이다。偉大한 般若智는 沈默으로 表現되는 것이다。우리가 부처님을 呼稱하는데、이 뜻은 사카族出身의 무니 즉 聖者라고 부르는 것이다。사카·무니란 말이다。그러면 이 무니는 원래 沈默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사카族의 가장 聖人인 부처님은 가장 위대한 沈默의 의미를 알고 그 철학을 지켰고 또 그침묵의 無分別知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

둘째、般若智는 말아야 한다。微底하게 말아야만 한다。徹底하게 말아야만 참 말이다。透明하게 말아야만 참 말이다。그래서 漢譯은 「般若」를 「智慧」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音譯하였다。般若智는 太陽빛같이 透明하다。透明하게 말아야만 참 말이다。그래서 漢譯은 「般若」를 「智慧」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音譯하였다。般若智는 太陽빛같이 透明하다。透明하게 말아야만 참 말이다。그래서 漢譯은 「般若」를 「智慧」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音譯하였다。般若智는 太陽빛같이 透明하다。透明하게 말아야만 참 말이다。그래서 漢譯은 「般若」를 「智慧」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音譯하였다。

셋째、般若智는 太陽빛같이 冷靜하다。나와 남이 하나가 되며、어제 今日 내일이 없고 無限心이 있을수 있겠는가。그래서 般若智의 眞理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普遍性을 띠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 紀念特輯

北岳의 佛教思想

리들의 國土분단과 통일에의 意志가 당시와 비슷한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本文중에서>수천년간 우리 민족은 물론, 東洋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온 불교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現代的 조명이 필요하다. 이에 三國統一의 大業을 이룩한 新羅의 思想的 背景을 「부처님 오신날」 紀念 特輯으로 다룬다. <編輯者 註>

統一新羅의 護國思想

黃 壽 永 〈文理大史學科敎授·文博〉

一

신라의 불교가 호국의 사상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낸 것은 三國統一이란 가장 어려운 역사적 과업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말할 것도 없이 신라 불교의 이같은 성격은 統一大業이 이루어진 이후에 있어서도 또한 계승되었다. 그리므로 불교가 初傳된 6세기부터 8세기에 이르기까지에는 그와같은 護國思想의 표현에서 비록 强弱과 내실의 差別相은 있었다하더라도 또한 시종 일관하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이같은 호국사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전하여준것이 곧 新羅의 寺院이며 그곳에 표현된 불교미술이였다. 그리므로 신라의 불교 조형은 이같은 성격을 가장 正直하고 또 具體的으로 表現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다음에 우리는 古新羅와 統一직후 그리고 8세기 中葉에 창립된 몇개의 寺院을 들어설명하겠다. 그같은 신라의 가람은 첫째 그 占定位置에서 고찰되어야하며 둘째로는 그곳에 봉안된 塔像을 살펴야하며 세째로는 그같은 寺院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역사적 人物과의 관련에서 이해되어야 할것이다.

二

6세기 고신라에 있어서 佛敎造形에 나타난 護國思想의 표현을 보자면 먼저 神仙寺의 遺墟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神仙寺址는 오늘 경북 月城郡 西面 松仙里 雨中골 斷石山頂 가까이 위치하였는데 이곳에는 自然의巨岩 四石이 ㄷ字形으로 둘러있어 天成의 石室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三面의 內壁에 三尊佛인 三尊佛像을 彫刻하였다. 그 主佛은 釋迦牟尼佛이며 左右에 脇侍菩薩이 서있는 一般的인 三尊佛의 形式과는 달리 主佛인 三尊佛이 彌勒信仰을 따라서 造成되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첫째는 이 石窟과 統一의 英雄인 金庾信將軍과의 因緣이 이곳에서 추정되었다. 김장군의 기사를 三國史記列傳에서 찾으면 그는 15세에 花郎이되니 世人이 翕然히 服從하고 龍華香徒라고 불렀다. 그후 2년이 지나 皇로 「中岳石崛」에 들어가서 三國統一을 祈願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義湘의 활동은 新羅의 國土를 三國統一의 大業을 이룩한 新羅의 思想的 背景을 「부처님 오신날」 紀念 特輯으로 다룬다. <編輯者 註>

三

文武大王에 의하여 三國統一이 이룩된 직후 경주 狼山에 四天王寺가 건설된다. 신라 三山의 으뜸으로서 일찍부터 大祀를 받들었던 이곳 神遊林에 國祖 이 定礎된 것 宮室이 전개된 것 또한 護國思想을 추정하는 것이다. 또 이곳 狼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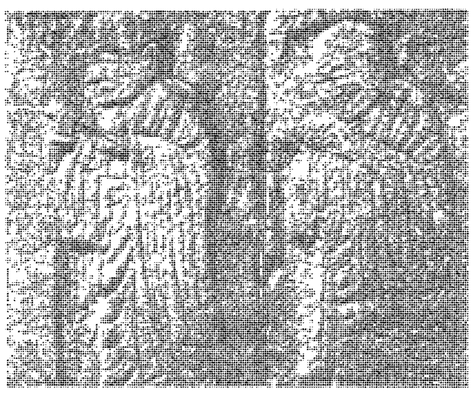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 紀念特輯

統一의 偉業

○……佛敎의 宗敎的 目的과 세속國家의 政治的 理念과는 여러가지 立場에서 서로 相反될 수 밖에 없
○……다. 여기에 國史上의 重要한 문제가 제기된다. 新羅가 치열한 戰爭을 통하여 三國統一의 大業을 수
○……행하던 당시, 新羅 僧侶들은 國家의 그러한 政治的 目的달성에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 과연 佛敎
○……는 新羅의 三國統一에 공헌을 하였을까 또는 장애가 되었을까. 특히 그러한 문제는 오늘날 우

統一基盤造成과 新羅僧

權奇悰 〈佛敎文益師〉



◇羅漢像 (경주博物館)

신라에 불교가 公認되었던 法興王13년(526)이며, 出家僧侶制를 허용한 것은 眞興王 5年(544)이다。이 후 約120여년이 지나 三國統一의 大業을 가져왔다。

신라는 백제나 고구려에 비하여 더욱 파의 접촉이나 거리가 멀고 고립된 地域的이유에서만도 文物의 정도가낙후되었으며, 따라서 三國을통일할만한 힘을 갖지못했다。

이러한 신라가 三國統一의 大業을 달성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일 수 없다。물론 백제나 고구려에도 佛敎는 있었다。그렇다면 유독히 신라의 불교만이 護國的이 였고 그外의 불교는 非護國的이였던 것인가。

여기에서 신라 불교의 다른점과 신라 승려들의 特性이 있었을를 알수있다。같은불교를 傳受하여 서로 다른방향으로 발전시킨 신라의 승려들은 마침내 三國統一이라는 위업을 완수하게하였다。이와같은 신라승들의 기여는 思想的側面과 社會倫理的側面과 實際的側面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1、統一理念의樹立

먼저 法華經을 中心으로한 會三的一의 思想을 들 수 있다。會三的一이란 셋이하나로 돌아 간다는 統一의 사상이다。물론 會三的一은 法華經 方便品의 敎說로서 聲聞과緣覺과 菩薩이 서로 다른 根性이 아니라 모두가 一佛乘이라는 平等無差別의 思想이다。그러나 이러한 一切平等의 統一思想이 元曉나 順憬、憬興에 의하여 강조되었다。

元曉는 「十門和諍論」을 著述하여 모든 異說을 總和하여 和諍코자 하였다。모든分裂과 對立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보고 이러한 집착을 버리고 보고 이러한 집착을버리고 一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國家觀으로 발전되어 갔다。

◇羅漢像 (경주博物館)

또한 佛法과 王法이 둘이 아닌 眞俗圓融無碍의 元曉思想은 起信論海東疏와 金剛三昧經論을 通하여 國王과 百官을 위시한 一切의 道俗에게 講說했던 것이다。따라서 新羅의 三國統一이야말로 佛敎의 第極的 理想인 淨土의 實現과 同一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慈藏은 전제적 왕권이 강조되어 있던 신라의 王族인 聖骨出身으로 佛敎를 통하여 王權을 神聖化하고 護國思想을 고취하였던 것이다。

또한 佛敎를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慈藏은 戒律을 중시한 반면 元曉는 一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대화가 있었다는것은 승려로서의 자장의 護國心이 얼마나 투철하였던가를 짐작케한다。

그후 자장은 歸國하여 佛舍利의 信仰과 國防上의 건립을 완성했고 新羅佛敎國土思想을 확립 하였다。新羅는 오늘에와서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된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러한 대화가 있었다는것은 승려로서의 자장의 護國心이 얼마나 투철하였던가를 짐작케한다。

그후 자장은 歸國하여 佛舍利의 信仰과 國防上의 건립을 완성했고 新羅佛敎國土思想을 확립 하였다。新羅는 오늘날 우리들의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적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護國的이였던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大宗武烈王 2년(625) 고구려의 대규모 침략을 격퇴하고 보고 이러한 집착을버리고 一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國家觀으로 발전되어 갔

뿌리 깊은 巨木으로 成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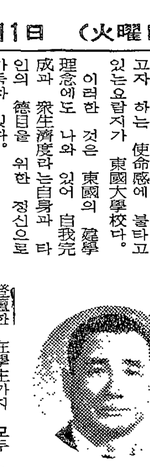
夏殷金

서울의 中心地 南山 기슭에 우뚝 솟아 있는 巨木—이것이 바로 우리 東國大學校의 모습이다。이뿐만 아니라 70년동안 우리 겨레와함께 아픔을 같이하고 고난의 역사를 뚫고 나온 것이 우리 東國大學史에 一貫된 전통이고 정신이였다。언제나民族과 國家를 위한 使命感에 불타고 있는 오탑지가 東國大學校다。

이러한 것은 東國의 建學理念에도 나와 있어 自我完成과 衆生濟度라는 自覺과 타인의 德目을 위한 정신으로 가득차 있다。

登壇한 在學生까지 모두 2百名을 헤아리는 東大出身文人이야말로 東國의 文學전통을 빛발힘하고 있는 東國의 정신적 支柱임에 틀림없다。

當時 「東大生」하면 외부에서 말하길 「詩人아닌 학생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文學大學의 「이미지」

宋 媛 熙

東國 개교 70년이라나 문학 그것밖에 안되었던가고 다시 돌이켜본다。

웬지 등국은 행복을 헤아릴 수 없는 먼 테고의 기생각은 비기 있을 것같은 생각은 아닌듯싶다。그런 분이 든다。그런 단 나만의것은 아니였으리라。다른 사람들도 이란 같에 묻가 못된 것이 아니냐는 표정을 짓는 것을 그만큼 東國을 70년 수백년 같 일을 해왔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이 될까。아마 東國의 나무는 뿌리깊은 巨木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첫째가 무엇보다도 佛敎大學이라는 점이다。

佛敎는 韓國人의 종추신경 家、小說家을 배출한것이 특 그것보다도 東大 캠퍼스 안에서만은 평화를 누리려면 大에 가라는 문학을 하려면 東 말이 있다。아 못하였다。 시 들어컷본다。 시 현역 시인、소 또 東大전통의 하나는 文 설가들이 또 현재의 東大 學 전통이다。나는 政外社出 國의 학생들이 그런 의도에 身이라 文學과는 거리가 멀 서 공부하고 있을 것으로 믿 지만, 韓龍雲을 비롯하여 徐 는다。나 역시 그 중의 한 廷柱、趙芝薰을 거쳐 오늘에 사람이니까。

또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중고등학교 교사는 등대 국 문과 출신이 많다는 점이다。 佛敎大學이라는 이미지보다 文學大學의 이미지가 훨배질 은이유가 여기에있지않을까。 70년이라면 결코 짧은세 월이 아니면서도 그 70년의 역사를 더 할만한 긴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東國은 이 땅 에 뿌리를 깊숙히 박고 뻗 어있다。또 그 나무의 무성 한 잎과 탐스럽게 맺은 열 매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아 름답게 꾸며주는 바 있다。

文學大學의 「이미지」

宋 媛 熙

東國 개교 70년이라나 문학 그것밖에 안되었던가고 다시 돌이켜본다。

웬지 등국은 행복을 헤아릴 수 없는 먼 테고의 기생각은 비기 있을 것같은 생각은 아닌듯싶다。그런 분이 든다。그런 단 나만의것은 아니였으리라。다른 사람들도 이란 같에 묻가 못된 것이 아니냐는 표정을 짓는 것을 그만큼 東國을 70년 수백년 같 일을 해왔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이 될까。아마 東國의 나무는 뿌리깊은 巨木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첫째가 무엇보다도 佛敎大學이라는 점이다。

佛敎는 韓國人의 종추신경 家、小說家을 배출한것이 특 그것보다도 東大 캠퍼스 안에서만은 평화를 누리려면 大에 가라는 문학을 하려면 東 말이 있다。아 못하였다。 시 들어컷본다。 시 현역 시인、소 또 東大전통의 하나는 文 설가들이 또 현재의 東大 學 전통이다。나는 政外社出 國의 학생들이 그런 의도에 身이라 文學과는 거리가 멀 서 공부하고 있을 것으로 믿 지만, 韓龍雲을 비롯하여 徐 는다。나 역시 그 중의 한 廷柱、趙芝薰을 거쳐 오늘에 사람이니까。

또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중고등학교 교사는 등대 국 문과 출신이 많다는 점이다。 佛敎大學이라는 이미지보다 文學大學의 이미지가 훨배질 은이유가 여기에있지않을까。 70년이라면 결코 짧은세 월이 아니면서도 그 70년의 역사를 더 할만한 긴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東國은 이 땅 에 뿌리를 깊숙히 박고 뻗 어있다。또 그 나무의 무성 한 잎과 탐스럽게 맺은 열 매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아 름답게 꾸며주는 바 있다。

應適 에 代時實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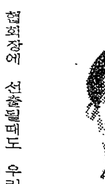
李 珪 肯

言論界에도 유능 同門들이 많이 있다。 내가 70周年을 맞이하여 회고담을 쓴다고하 니 각회가 새롭다。올해가70 년이면 곧 80년 1백년이되 겠지。

우리 동국이 혜화문이후 약간 침체된 경향이 있었지만 오즈음 들어 한 인재가게 속 나온다。 선배로서 흐뭇한 마음이 든다。

이제 學校를 떠나 言論界에 투신한지10年을 넘기고 보니、사회는 참신보다 실력을 더 요구한다는 것과 사람을 대할때 순간 순간의 눈치만 늘었다고 하겠다。물론 사회생활상 동료들의 덕도 많이 받고있다。이번 한국기자협회장에 선출됨에도 우리 등국 동문들의 적극 지지 및 도움이 되었다。

재학시절엔 法學科에 적을 두고있었다。 1학년부터 재학시절에 합격하겠다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文學大學의 「이미지」

宋 媛 熙

東國 개교 70년이라나 문학 그것밖에 안되었던가고 다시 돌이켜본다。

웬지 등국은 행복을 헤아릴 수 없는 먼 테고의 기생각은 비기 있을 것같은 생각은 아닌듯싶다。그런 분이 든다。그런 단 나만의것은 아니였으리라。다른 사람들도 이란 같에 묻가 못된 것이 아니냐는 표정을 짓는 것을 그만큼 東國을 70년 수백년 같 일을 해왔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이 될까。아마 東國의 나무는 뿌리깊은 巨木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첫째가 무엇보다도 佛敎大學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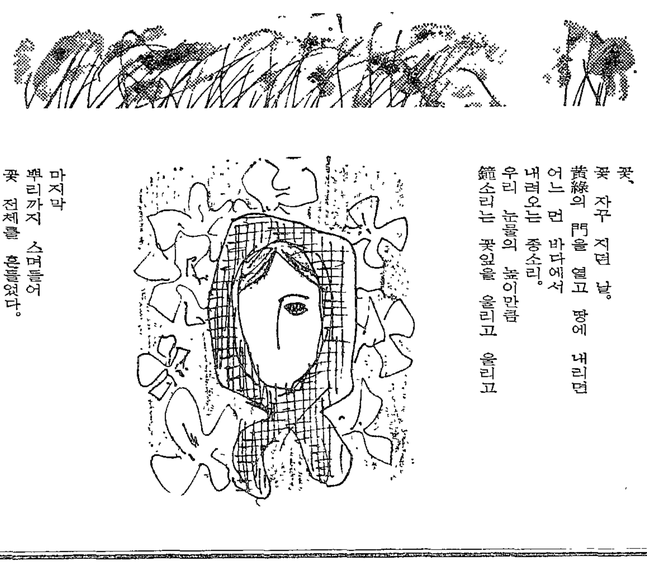
佛敎는 韓國人의 종추신경 家、小說家을 배출한것이 특 그것보다도 東大 캠퍼스 안에서만은 평화를 누리려면 大에 가라는 문학을 하려면 東 말이 있다。아 못하였다。 시 들어컷본다。 시 현역 시인、소 또 東大 전통의 하나는 文 설가들이 또 현재의 東大 學 전통이다。나는 政外社出 國의 학생들이 그런 의도에 身이라 文學과는 거리가 멀 서 공부하고 있을 것으로 믿 지만, 韓龍雲을 비롯하여 徐 는다。나 역시 그 중의 한 廷柱、趙芝薰을 거쳐 오늘에 사람이니까。

또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중고등학교 교사는 등대 국 문과 출신이 많다는 점이다。 佛敎大學이라는 이미지보다 文學大學의 이미지가 훨배질 은이유가 여기에있지않을까。 70년이라면 결코 짧은세 월이 아니면서도 그 70년의 역사를 더 할만한 긴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東國은 이 땅 에 뿌리를 깊숙히 박고 뻗 어있다。또 그 나무의 무성 한 잎과 탐스럽게 맺은 열 매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아 름답게 꾸며주는 바 있

文學과 倫理

民族文化講座에서

○○○



祝典

○…祝典。하늘이 오늘 빛깔어리 들로 살아 움직인 前夜祭。

젊음의 열기로 비워진 校庭엔 날새워 수많은 얘기들이 聖像 주변을 맴돌았다。

일른 살을 앓리는 일본 개의 폭죽—그 빛깔이。젊고 고왔지는 東國。

○…노래, 환성, 서로의 가슴을 찌르는 얘기들。

젊어지고 싶은 모든것들은 5月의 푸르름이 끝제 불밝힌 校庭으로 오라。

모두 祝祭의 리본을 달아라。

가슴을 열어라。

5月의 멱찬 생기로 젊다운 열굴을 만들고 그리고 얘기하라。

모든것 싱그럽다。

○…곳갑다 가는 곳마다 가장 아끼고 싶은 것들이 벌려있꼬, 머고싶은 귀한 말씀 쌓여있는 풍오로운 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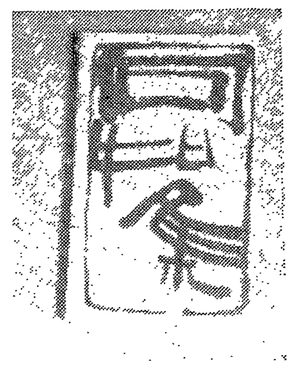
우리의 가장 순수한 마음에다 즐기를 빌려 불씨를 만들고 우리의 知性에 불을 붙이자。

일몬 번 젊어진 학문의 요람。

불 밝히고 고쳠지르며 힘차게 곧고가자。앞으로 앞으로 가자。

〈사진=崔吉東記者〉

祝典! 그 熱氣…



本校 재학생인 金漢根(한불科)·金容哲·金淑姬(이상 국문과)·釋慈明(승가과)·金容彬(불교과)등의 5인 시집「何如集」이 발행 되었다。

편집후기에는「何如間」뜻 하나로 何如集을 내 놓다니고 밝혔는 데 이는「何如集」이 동인지적격 보다 그들의 창작시 발표와 아울러 자기성장을 위해 부끄럼없이 내 놓는듯 하다。

이들 5人의 詩에서는「意識과 意識의 저고 넓은 內面空間을 가로지르」는 詩語들이 눈에 띄고 詩語들이 우선 눈에들어온다。

金容彬의「장미원의 구름들」「낮다」등 7편에서는 거의 佛敎에 입각하고 있는 현대한 그의 생각들을, 金容哲은 여성으로 불장을수 있는 재치가「驛舍」「豫感」등 6편의 시에 나타나있꼬,「金淑姬「꽃잎에」「죽음에 기대어」등 8편의 詩에서는 구상의 노래가를 엿볼수있다。

5人의 詩에서 곧이 공통점을 찾는다면 何如集」에 나오는 거의 모든詩에서 느낄 수 있는 佛敎的인 색채와 人間本質을 꿈임없이 탐구하려는 진지한 자세일것이다。

앞으로의 詩作활동에 하나의 整理가 되는듯 하다。

〈現代文學社刊·값5백원〉

何如集

兪漢根등 5人詩集

隨筆의 理解

新着圖書

<張伯逸著·玄岩社 360面 값1,200원>

수필은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이해시키는 果汁이다。그리하여 인간과의 접한 관계를 맺고, 인생 그자체를 찾다가 가는 것이 바로 수필이다。

本書는 대학에서 수필론을 강의한 저자(國民大敎授·評論家)가 수필초보자의 이해를 돕고, 일반적인 이론을 더듬어 가면서 수필문의 類型과 실제를 살펴 작법, 퇴고과정, 감상법등을 폭넓게 槪說해 놓은 책이다。

크게 5장으로 나누어 제1장에는 본질·특성·엣세이와의 관계를, 2장은 隨筆의 종류로서 유형과 (실제·칼럼·감상문·서정문·서간문·일기문·기행문을, 3장은 수필작법, 4장은 수필의 퇴고 개념과 진실성·허위성의 차이를 싣고 있다。5장에는 감상의 기본태도, 요령의 실제를 인용하여 쉽게 풀이해 놓았다。

韓獨文學比較研究(Ⅰ)

<李裕榮·金학등·李存統 共著·三英社 330面 값 3천원>

이 책은「1920年代까지 독일 문학의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말해 주듯이 독일문학과 한국문학의 접촉이전의 견문기적 기록으로부터 1920년대까지의 연구이다。

독일과 한국이란 격정된 나라가 어떻게 서로의 이름을알게되고, 그것이 일부 중국으로부터 또는 일본으로부터 우리 문학에 알려지게 됐는가를 추적하고, 다시 우리 문학자가독일어로 서독문학을 수입하는 초기 단계까지 미치고 있다。

이책은 서론에서 전통비교문학의 방법으로서 영향관계에서 역할하면서 세계문학의 관점에서도 이를 밝히고 있다。

2章「독일문명과의 접촉」에서 한국사회와 문물이 서로 알려지게 되고, 3章「독일문학의 수용」에서 한국사회의 문물이 서로 알려지게 되고, 4章「독일문학의 중기부터 기술」에서 韓末에 직접 교섭을 갖게 이르고 있다。

<공보관 中央圖書館제공>

數養學部 讀書공론 入賞作

意識과 本能

崔容哲

—까뮈著「異邦人」을 읽고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고 독신생활을하는 하급사원 뫼르소에게는 다음과같은 전보가 온다。

「모친별세, 명일장례, 그러나 순간 그에게는 어머니가 죽지않은 것이나 별다름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장례식 전일 갑호원은 뫼르소에게「일관한 어머니가 왜 까만 빛깔들사이에서 나는 희미경한 정신을 지고 있었다。•웨빛, 가죽 아스팔트가 녹진하여 발이 빠져 돌아가서는 번 넥거리는 바닥에 자국을 넣어 놓는 것이다。영구차 위로 들어나 보이는 마부의 가죽 모자는 마치 겹은 영창속에 봉어서 이긴것 같았다。

부르고 흰 하늘과 그 단조롭은 빛깔들, 끈적거리는 아스팔트의 겹은빛깔, 거무스름한 의 복빛깔 옻칠한 영구차의 까만 빛깔들사이에서 나는 희미경한 정신을 보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그는「글세잘 모르겠단」는 말만을 했다。

「모저운 행렬에 녹아서 이 빠져 돌아가서는 번 넥거리는 바닥에 자국을 넣어 놓는 것이다。영구차 위로 들어나 보이는 마부의 가죽 모자는 마치 겹은 영창속에 봉어서 이긴것 같았다。

부르고 흰 하늘과 그 단조롭은 빛깔들, 끈적거리는 아스팔트의 겹은빛깔, 거무스름한 의 복빛깔 옻칠한 영구차의 까만 빛깔들사이에서 나는 희미경한 정신을 보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그는「글세잘 모르겠단」는 말만을 했다。

「모저운 행렬에 녹아서 아스팔트가 녹진하여 발이 빠져 돌아가서는 번 넥거리는 바닥에 자국을 넣어 놓는 것이다。영구차 위로 들어나 보이는 마부의 가죽 모자는 마치 겹은 영창속에 봉어서 이긴것 같았다。

부르고 흰 하늘과 그 단조롭은 빛깔들, 끈적거리는 아스팔트의 겹은빛깔, 거무스름한 의 복빛깔 옻칠한 영구차의 까만 빛깔들사이에서 나는 희미경한 정신을 보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그는「글세잘 모르겠단」는 말만을 했다。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고 독신생활을하는 하급사원 뫼르소에게는 다음과같은 전보가 온다。

「모친별세, 명일장례, 그러나 순간 그에게는 어머니가 죽지않은 것이나 별다름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장례식 전일 갑호원은 뫼르소에게「일관한 어머니가 왜 까만 빛깔들사이에서 나는 희미경한 정신을 보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그는「글세잘 모르겠단」는 말만을 했다。

「모저운 행렬에 녹아서 아스팔트가 녹진하여 발이 빠져 돌아가서는 번 넥거리는 바닥에 자국을 넣어 놓는 것이다。영구차 위로 들어나 보이는 마부의 가죽 모자는 마치 겹은 영창속에 봉어서 이긴것 같았다。

부르고 흰 하늘과 그 단조롭은 빛깔들, 끈적거리는 아스팔트의 겹은빛깔, 거무스름한 의 복빛깔 옻칠한 영구차의